

# 일본의 학교도서관 발전에 미치는 문고운동의 영향

## The Impact of the Bunko Movement on School Library in Japan

권 은 경(Eun-Kyung Kwon)\*

### 목 차

- |                             |                                |
|-----------------------------|--------------------------------|
| 1. 서 론                      | 3. 3 공공도서관 설립의 원동력으로<br>서 문고운동 |
| 2. 일본의 학교도서관을 둘러싼 최근의<br>동향 | 3. 4 문고운동의 특성                  |
| 2. 1 사서교사 배치의 의무화           | 4. 일본 학교도서관의 발전과 문고운동          |
| 2. 2 학교도서관 도서정비 5개년 계획      | 4. 1 학교도서관 운동의 전개              |
| 2. 3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법           | 4. 2 긍정적인 측면                   |
| 3. 일본의 문고운동                 | 4. 3 부정적인 측면                   |
| 3. 1 문고의 유형과 발전             | 5. 결 론                         |
| 3. 2 문고의 활동내용               |                                |

### 초 록

본 논문은 일본사회의 어린이 독서운동의 핵심인 문고운동을 고찰하고, 그것이 학교도서관에 미친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어린이 독서운동과 학교도서관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두 가지 내용을 연구하였다. 하나는 일본의 정부가 주도하는 학교도서관, 어린이 독서활동과 관련된 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이 주도한 문고운동이다. 문고운동은 1960년대에 어린이 독서운동으로 시작하여 공공도서관 설립운동으로 발전하였고, 1990년대에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운동에 참가하였다. 이 두 내용은 학교도서관을 교수-학습센터로서 보다 주로 어린이의 독서환경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학교도서관을 독서시설로 이해하는 경향은 교과과정의 전개를 지원한다는 학교도서관 전문성의 확립을 저해하고 있다.

###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Bunko, the center of Japanese children's reading movement, and its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Japanese school library. Paper is consisted by two parts; one subject is the programs and the law made by government which is related to either the school library or children's reading, the other is Bunko movements initiated by citizen mostly mothers who wish to improve their children's reading environment. The Bunko movements started in 1960's and motivate the establishment of public libraries in 1970's, and it has triggered activating the school library after early 1990's.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s of the two subject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y are tightly connected each other by emphasizing the function of school library not as a teaching-learning center but as a reading facility. It makes difficult for the Japanese school library to establish the most important function of supporting curriculum.

키워드: 일본 학교도서관, 일본 문고운동, 어린이도서관, 어린이문고, 가정문고

Japanese School Library, Japanese Bunko Movement, Children's Library, Home Library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eunkwon@daegu.ac.kr)  
논문접수일자 2005년 2월 15일  
게재확정일자 2005년 3월 16일

## 1. 서론

최근 일본의 학교도서관 발전에는 시민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 닫혀있던 학교도서관에 사람을 배치하여 열린 도서관으로 만들고, 그 실천이 축적되어 도서관의 필요성과 사람의 중요성을 인식시켰다. 그 결과 학교도서관법을 개정하여 사서교사를 전교에 배치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한가운데 시민들이 주도한 독서운동, 특히 어린이 독서를 핵심 활동으로 실천하는 문고운동이 있다. 시민들의 풀뿌리 독서운동이 학교도서관 활성화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도서관 발전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의 토대가 일본사회의 저변에 확산되어 있는 어린이 독서에 대한 관심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학교도서관과 일본사회의 독서에 대한 높은 관심은 뿔뿔이 떨어져 있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본 논문은 일본사회의 풀뿌리 독서운동, 특히 어린이 독서운동의 핵심인 문고운동을 고찰하고, 문고운동이 일본의 학교도서관 발전에 미친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어린이 독서에 대한 일본 사회의 높은 관심과 학교도서관과의 관계를 보다 광범하게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 내용을 연구하였다. 하나는 최근 일본의 정부, 국가가 주도하는 학교도서관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시책으로 「사서교사 의무배치」, 「학교도서관 도서정비 5개년 계획」,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법」을 살펴보았다. 다른 하나는 어린이 독서운동의 본거지인 문고의 발전과 학교도서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두 가지 내용은 얼핏보면 하나는 국가의 시책이고 또 하나는 시민 주도의 어린이 독서활동으로

크게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어린이 독서, 자원봉사,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협력, 학교도서관의 개방,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의 키워드를 공유하면서 강하게 결속되어 있다. 이 결속은 일본 사회의 독서에 대한 깊은 관심이 주민과 국가 사이에 어떤 방식으로 교류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로우며, 학교도서관의 성격을 결정짓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일본에서 발표된 문고운동, 학교도서관 관련 논문과 실태조사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논문의 기술은 최근의 동향을 먼저 살펴보고 그 동향의 배경이 되는 문고운동과 문고운동이 학교도서관에 미친 영향을 기술하는 연역적 기술방법을 택하였다.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내용은 주제의 특성상 초·중학교 도서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2. 일본의 학교도서관을 둘러싼 최근의 동향

최근 일본은 2차대전 이후 두 번째로 학교도서관의 발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패전 직후 타올랐던 새로운 교육관은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1953년에 학교도서관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사서교사 배치를 유보함으로써 활성화되지 못한 채로 1960년, 70년대의 고도경제성장시대를 맞이하여 경제 논리에 의한 주입식 교육의 만연으로 학교도서관은 정체기로 접어들었다.

1990년대에 접어들어 일본의 국회, 정부는

학교도서관의 활성화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1997년 학교도서관법의 개정과 그에 따른 사서교사의 의무 배치이지만, 1993년 「학교도서관 도서표준」 제정, 「어린이와 책의 의원연맹」 결성, 1993년부터 2007년까지 1, 2차로 지속되고 있는 「학교도서관 도서정비 계획」, 2001년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법」 제정 등 어린이 독서와 관련된 일련의 움직임은 학교도서관을 어린이, 학생들의 독서활동의 중심지로 보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직간접적, 遠近적 지원사업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 1 사서교사 배치의 의무화<sup>1)</sup>

1997년에 개정된 일본의 학교도서관법에 의하면 2003년 3월 31일까지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12학급 이상의 초·중학교에는 의무적으로 사서교사를 배치하도록 되어있으며, 100%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교사의 직책이 교과교사의 겸임이고 전문성이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도서관 담당 인력이 법적으로 의무 배치되었다는 것은 학교도서관 발전에 큰 획을 긋는 것임은 분명하다.

학교도서관법을 개정하여 사서교사를 의무

적으로 배치하도록 한 원동력의 하나는 바로 시민단체의 학교도서관에 대한 관심이었다. 사서교사의 부재로 오랫동안 방치되어온 학교도서관에 어린이의 독서활동을 실천해온 학부모와 문고운동가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사서교사가 완전히 배치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활동 정도와 성과에 대한 기대는 그다지 높지 못하다. 담임과 교과를 담당하면서 수업시간도 감면받지 못한 상태에서 도서관활동을 하기란 근본적으로 제약이 크기 때문이다. 사서교사가 배치되면서 도서관 담당 인력의 구성에 다양한 변화가 드러나고 있다. 사서교사가 발령된 학교에 추가로 학교사서를 배치하는 자치체, 시민운동으로 학교사서를 전교에 배치한 자치체가 있는가 하면, 법 개정시에 우려했던 대로 사서교사의 배치로 학교사서를 해직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동경도 日野시의 경우는 13년간 주민의 끈기있는 운동으로 지속되어온 학교도서관 촉탁원 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시간제 유급 자원봉사자를 도입하는가 하면 동경도립고등학교의 경우에도 학교사서를 삭감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다(學校圖書館問題研究會 2003).

<표 1>에서 보는 사서교사의 배치율은 2002

<표 1> 일본 학교도서관 인력 배치율<sup>2)</sup>

구분	사서교사	학교사서	자원봉사자
초등학교	16.8%	22.1%	31.5%
중학교	22.2%	26.1%	11.5%
고등학교	26.7%	87.4%	2.5%

- 1) 일본의 사서교사 제도와 현황에 관한 연구로는 권은경(2004)의 논문이 있다.
- 2) 사서교사와 자원봉사자의 수치는 2002년에 문부과학성이 실시한 『學校圖書館の現状に關する調査』에 따른 것이며, 학교사서의 수치는 全國學校圖書館協會 編, 『データに見る今日の學校圖書館: 學校圖書館白書 3』(1998)에 의함.

년도의 수치로 완전히 의무 배치되기 전의 숫자이다. 이 표에서 일본 학교도서관 담당인력의 특성을 볼 수 있다. 초등학교는 자원봉사자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고, 고등학교는 학교사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학교사서의 자격과 신분은 매우 다양하고 불안정한데, 학부모 자원봉사자 중에서 시의 연수를 받은 사람을 도서관사무담당자 또는 독서지도원으로 고용하는 경우도 학교사서의 범주에 포함된다(吉川 2003). 시간적인 제약과 사서로서의 전문성이 부족한 현행의 사서교사로는 최소한의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도 다른 인력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학교도서관에 자원봉사자가 유입되고 독서활동만이 강조될 때 교과과정의 전개를 지원한다는 학교도서관의 전문적 기능은 수행되기 어렵다. 이러한 인력 구성은 학교도서관의 활동이 독서 중심으로 흘러가게 하는 주 요인이 될 것이다.

## 2. 2 학교도서관 도서정비 5개년 계획

학교도서관의 재정비에 국가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교육의 변화에 있다. 1989년에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새로운 학력관」, 「배우는 방법의 지도」,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교육이 표방되었다. 교육의 변화에 따라 학교도서관을 한층 더 활용하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습, 독서에 필요한 자료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1993년에 「학교도서관 도서표준」을 정

하고 공립 의무교육학교의 도서관 장서수를 기존 장서수의 1.5배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학교도서관 도서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1997년까지 5년간 100억엔 씩 총 500억엔을 지방교부세<sup>3)</sup>로 조치하였다. 97년 이후에도 매년 약 100억 엔의 자료비를 지속적으로 조치하였다. 그러나 문부과학성이 2002년 8월에 실시한 학교도서관조사에 따르면 「학교도서관 도서표준」을 달성하고 있는 공립학교는 초등 33.7%, 중학교 26.5%에 지나지 않았다(文部科學省 2002). 정부는 2002년에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독서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시 「학교도서관 도서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까지 매년 130억 엔 씩 총 650억 엔을 또 다시 지방교부세를 증가 조치하였다. 1차와 2차 계획의 금액을 초·중학교로 비교해 보면 1994년 초등학교의 경우 18학급을 기준으로 하여 203,000엔, 중학교의 경우 15학급 기준으로 424,000엔이었으며 2004년에는 같은 기준으로 초등학교 440,000엔, 중학교 732,000엔으로 책정되었다.

상당한 액수가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훨씬 밑도는 이유는 이 사업의 재원이 지방교부세이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를 교부할 때는 지방자치의 본뜻을 존중하여 용도에 조건을 단다든지 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타 용도, 예를 들면 도로포장 등과 같이 학교도서관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에 전용하고 있는 자치체가 66%에 달하여 문제

3) 지방교부세는 지방공공단체 간에 존재하는 경제적 격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의 질과 량의 차이를 전국적으로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방공공단체 간의 재원을 조정하기 위한 재정조정제도의 핵심이다. 국세와 소비세 등의 일정 정도가 자동적으로 지방교부세로 전환된다.

가 되고 있다(河井 2003).

문부과학성은 지방교부세를 교부하면서 각 지자체장에게 도서자료 구입에 예산을 배정하도록 통지하는 한편, 학교도서관 쪽에서는 지역주민이 교육위원회나 지역의회에 어린이 독서활동의 중요성과 학교도서관 자료 증가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원래의 목적인 도서 구입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笠原 2003).

「학교도서관 도서정비 계획」은 1, 2차로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계획은 궁극적으로는 학교도서관 장서의 충실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지향하고 있지만 1차 계획과 2차 계획의 추진 배경에는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즉 2차 계획은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법」의 제정에 따라 독서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1차 계획은 신학습지도 요령에 따른 학교도서관 기능 활용을 지원하려는 데 필요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사업의 주관부서인 문부과학성이 학교도서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조사내용에는 사서교사 발령 수, 독서활동 상황, 장서정비 상황, 학교도서관 도서정비비의 예산조치 상황 등 네 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학교도서관의 운영에서 흔히 생각할 있는 수업과 연계된 도서관 활동에 대한 조사항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반면에 독서활동 상황의 조사내용에는 전교 一齊독서(특히 아침의 독서)의 실시상황, 필독서·추천도서의 설정상황, 자원봉사자의 협력상황,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문부과학성 2002).

학교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문부과학성의 인식이 독서활동 쪽에 크게 치우쳐져 있으며, 학교도서관 운영 인력으로도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부과학성이 목표로 하는 학교도서관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다.

### 2.3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법

어린이 독서활동에 관한 일본의 국가적 관심이 표면화된 것은 1993년 12월에 국회에서 초당파적으로 「어린이와 책의 의원연맹」이 결성된 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어린이와 책의 의원연맹」은 학교교육에 있어서 학교도서관의 존재에 대한 재고, 어린이 도서를 중심으로 한 국제교류, 국립 어린이도서관(가칭) 설립을 당면 목표로 삼았다(坂部 2003, 370).

1994년에는 국제어린이도서관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1999년에는 국회에서 2000년을 「어린이 독서의 해」로 가결하였으며 2000년 5월에 「국제 어린이도서관」을 개관하였다. 이어서 2001년 12월에는 「어린이 독서활동의 추진에 관한 법률」<sup>4)</sup>(이하 법)을 의원입법으로 제정하고 2002년 8월에는 법 8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독서활동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책임을 규정한 어린이의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이 내각에서 의결되었다.

이 법의 취지는 제 2조의 「기본이념」에 잘 드러나 있다. 즉 ‘어린이(대략 18세 이하를 일

4) 「子どもの読書活動の推進に関する法律」、「子どもの読書活動の推進に関する基本的な計画」 등은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참조.

컬음)의 독서활동은 어린이가 말을 배우고 감성을 닦고, 표현력을 키우고 창조력을 풍부하게 하며, 인생을 보다 깊게 사는 힘을 배양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모든 어린이가 모든 기회와 모든 장소에서 자주적으로 독서활동을 행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환경의 준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동법은 4월 23일을 「어린이 독서의 날」로 정하였다. 그리고 어린이 독서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 공공단체의 책무, 사업자와 보호자의 역할, 관계기관의 연휴 강화를 규정하고 아울러 정부는 독서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책정하고, 각 자치단체는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이 법은 의회에서 결의한 본법과 정부가 책정하는 기본계획, 그리고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지자체가 수립해야 하는 시책 등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의 기본계획은 어린이의 독서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가정, 지역, 학교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독서활동 추진시설과 환경으로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정비와 충실방안, 학교도서관 등의 관계기관과 민간단체의 연휴와 협력 추진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어린이의 자주적인 독서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전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각오와 구체적인 실천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각 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대한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활동시책을 결정하게 된다. 이 협의 과정을 大阪府의 경우를 예로 살펴보면, 어린이 독서활동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

요한 쟁점은 물리적인 독서환경의 조성이 아니라 독서환경인 학교,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의 시설과 장서를 정비하고 독서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할 사람에 있었다. 그런데 이 일을 담당할 사람으로 가장 빈번하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학부모, 지역의 독서회 또는 문고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이다. 협의 결과 大阪府의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계획 사업의 중심은 독서 자원봉사자 지도자 양성강좌를 개설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新井 2003).

결국 의회가 법을 제정하고, 법은 국가와 지방 공공단체가 어린이 독서활동에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활동은 책임도 전문성도 명확하지 않은 자원봉사자의 형태를 취한 시민들의 몫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독서환경 정비는 도서관이나 학교가 책임을 맡아야 하는 것으로 자원봉사자에 의존하는 경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과 안이한 형태로 자원봉사자의 활용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新井 2003, 170).

상기한 일본의 정책 및 정책의 추진과정을 보면 일본사회의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교수-학습센터라기 보다는 어린이·학생의 독서활동센터로 편향되어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게 된다. 그렇게 된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전문성이 확립된 사서교사제도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전문·전담의 사서교사 없이는 학교도서관의 전문적인 역할을 체계화할 수 없고 비전문의 유동적인 인력의 도입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높은 의존은 학교도서관을 독서시설 이상의 수준으로 기대할 수 없게 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저변에는 학교도서관의 활성화

화가 학교도서관의 기능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문적이고 계획적인 정책을 세워서 추진된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어린이 독서운동에 깊이 관여해온 이른바 시민들, 자원봉사자들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였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이 시민들은 학교도서관을 어린이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독서환경으로 보았고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추진해야 할 어린이 독서활동의 거점으로 파악하였다. 학교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이와 같은 인식이 그대로 정책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어린이 독서의 중요성이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이것은 매우 타당한 접근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교육에 있어서 학교도서관의 존재 이유는 독서시설 또는 어린이의 독서환경 만으로 반드시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다.

### 3. 일본의 문고운동

#### 3. 1 문고의 유형과 발전

어린이의 독서를 부모로서, 또는 독서활동이라는 관점에서 가까이서 지켜 본 사람은 어느 나라, 누구라 할 것 없이 아이들은 책을 좋아하며, 좋은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이야기의 즐거움에 빠지게 된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 어린이에게 필요한 도서관을 사회가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960년대 이후 어머니들 스스로가 만든 작은 도서관이 바로 문고이다. 일반적으로 문고라고 할 때 이용자가 반드시 어린이로 한정되지는 않겠지

만 일본에서 1960년, 70년대에 우후준순처럼 등장한 문고는 거의가 어린이문고의 성격을 띠고 있다. 초기의 문고가 회원제로 운영되었기 이후 공공도서관 설립운동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문고의 설립동기, 운영형태나 역할이 미국 공공도서관의 전신으로 벤자민 프랭클린이 창설하였던 회원제 도서관 JUNTO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하고(森崎 1979), 또는 '문고운동을 논하지 않고 일본의 도서관을 논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일본의 고유한 도서관활동으로 규정하기도 한다(松岡 1979).

문고의 명칭은 00문고, 00독서회, 00친자독서회, 00도서관 등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으나 운영 주체에 따라 크게 가정문고와 지역문고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가정문고는 개인이 자신의 가정을 개방하여 운영하는 어린이를 위한 독서시설, 즉 어린이 문고를 말한다. 2차 대전 이전에도 가정문고의 예가 있기는 하지만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 것은 1955년 전후의 악서 추방운동을 즈음해서이다. 지역문고는 1963년경 동경도 町田시립도서관이 시내의 洞倉에 권유하여 동단위로 만든 어린이문고를 지역문고라고 부른 것에서 연유한다. 회원제로 운영하며 아파트 단지 내의 집회실, 마을회관, 아동관, 공민관과 같은 공공장소를 이용한다든가 또는 낡은 전차나 버스를 새로 단장하여 공원 등에 설치하여 도서관으로 사용하는 전차도서관 버스도서관 등이 있다(小河内 1972).

가정문고의 시작은 젊은 주부들의 독서모임에서 출발하여 어린이 독서활동으로 바뀌는 경우 또는 처음부터 어린이 독서를 목표로 출발한 경우가 있다. 가정문고의 운영자는 거의 어

머니로 자신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독서의 열정과 활동이 아이가 성장한 후에 이웃의 아이들에게 장소와 책을 개방하여 활동을 확대시키는 형태로 시작된다. 지역문고는 '지역의 어린이는 지역이 함께 키운다'는 가치관에서 개인이 시작한 가정문고가 공동체 차원으로 발전하였거나 처음부터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회원제로 개설하였다.

문고운영의 공통적인 동기와 목적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좋은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건전한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것이다. 특히 부모와 자녀가 이야기를 매개로 나누는 정서적인 교감, 어린이들의 생기와 상상력 등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문고의 활동내용은 자료의 대출과 함께 어머니들의 「책 읽어주기」와 「이야기 들려주기」가 핵심을 이루었다. 문고의 기본적인 운영 방식은 일주일에 하루 또는 이틀 개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문고의 수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증가하였다. 1965년부터 1969년까지 5년간 설립된 문고가 184개로, 1969년 일본도서관협회가 조사한 242개 중 76%를 차지하고 있다.

그 직접적인 이유로는 아동문학가로서 문고 활동을 실천하면서 그 활동 기록을 1965년에 출판한 石井桃子의 『어린이 도서관』과 '어머니의 손으로 지역의 독서활동을'이란 모토로 1967년에 결성된 「親子독서센터」의 활동의 영

향이 컸다(浪江 1977; 小木曾 1993).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는 일본사회에 이전부터 있었던 폭넓은 독서운동, 즉 1951년에 시작된 長野현립도서관의 PTA 어머니문고, 1955년 이후의 약서추방운동, 1960년의 「어머니와 아이의 20분간 독서」와 같은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발전하였고, 문고는 어린이의 성장과 부모와 자녀간의 올바른 관계형성을 목표로 한 친자독서의 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되었다.

문고의 운영은 개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용 어린이의 증가와 왕성한 독서력 때문에 장서 부족을 겪게 된다. 장서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초기에 취했던 방법은 회비로 신간자료를 구입한다든가 기증을 받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 지속적으로는 적절한 대응책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보다 공적인 대책을 모색하게 된다. 장서를 확충하기 위한 초기의 공적인 대응책은 공공도서관의 장서를 대량으로 대출받는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은 공금으로 장서구입비를 지원받는 방법이었다. 1960년대에는 일본의 공공도서관 역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시민들이 그다지 기대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문고에 대량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1개월에 수 백 권의 단체대출이 가능하게 되었고, 단체대출이 가능한 장서의 숫자는 문고의 요청에 따라 초기의 150권, 200원에서 500권, 700권으로 점차 증가하였다.

<표 2> 1960년대에 설치된 문고의 수(森 1976)

년도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설치 수	9	3	5	9	15	17	20	43	50	54



전체적인 흐름에서 문고의 발전단계를 살펴 보면 개별 문고의 탄생, 지역의 문고 모임인 문고연합회의 결성, 지역문고 연합회를 중심으로 문고운동에 관한 정보교환과 학습이 거듭되면서 주민의 권리로서 자치단체에 대해 문고운동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순서로 발전하였다.

공공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자치단체장과의 면담을 요청한다든가 청원 서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요청하는 한편, 공공도서관의 설립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였다. 보조금 지급 방식도 처음에는 요청할 당시의 일회적인 것에서 시의회의 심의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으로, 그리고 요청한 문고 뿐 아니라 지역 내의 모든 희망 문고에 대한 지원으로 점차 지원범위가 확산되고 체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시장과의 면담, 청원서의 제출, 시의회에서의 심의, 부결, 채택 등의 과정을 통해 문고운동 관련자들은 지방자치의 방식과 자신들의 참여를 직접 경험하게 되면서 문고운동은 점차 문고활동을 통한 시민운동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시민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더욱 강화한 것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문고가 연합회를 조직하여 문고운동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시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다. 자료비 지원, 문고설립의 지원, 문고연합회의 운영비 보조, 아동도서관(실)의 정비 개선, 공공도서관의 설립, 더 많은 분관 설치 및 이동문고의 운영 요구로 이어졌다. 도서관의 예산에서 문고연합회에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문고는 공적인 성격이 강화되고, 공적인 성격이 강해지면서 문고운동은 단순한 어린이 독서운동의 차원에서 점차

지역사회의 문화환경, 그 중에서도 특히 어린이의 문화환경을 개선하려는 주민운동, 시민운동으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설립의 발판이 되기도 하였다.

지역문고인 電車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1967년에 시장을 면담하고 청원서를 제출한 東村山市의 경우 1970년에 「東村山市地域 兒童圖書館 補助金 交付 規程」을 정하였다. 그 내용은 지역 아동도서관을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에 대해 처음 3년간에 약 천권의 장서를 구비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도서 구입비에 약간의 운영비를 계상한 기준액의 80%를 보조한다는 것이다. 수십 권에서 수백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던 문고는 보조금을 교부받으면서 약 1500권에서 2000권 정도로 장서가 증가하였다(尾形 1970).

시의 입장에서 이 규정을 잘 살려서 지역 문고가 다수 설치되면 이후에 설립될 시립도서관의 토양을 다지는 효과를 얻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지역문고는 공공도서관이 설립되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공공도서관 설립을 위한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설립 이후에는 분관, 이동도서관의 거점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과도기적으로 미비한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문고에 대체시킨 것에 대해서는 비난도 적지 않았지만, 문고 운영 경험을 통해 시민은 자신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도서관의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었고 그것은 공공도서관 설립뿐 만 아니라 운영 전반에 이르기 까지 강한 요구와 참여를 가져와 명실상부한 시민의 도서관을 설립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3. 2 문고의 활동내용

문고는 민간에 의해 자발적이고 주체적이고 자유롭게 운영되기 때문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 외에는 표준화된 활동내용이란 있을 수 없다. 문고 운영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가까이 책이 있으면 아이들은 책읽기를 좋아한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어린이의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책을 읽는 것은 부모-자녀의 올바른 관계형성에 중요하다는 것이다.

문고의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활동은 「책 읽어주기」와 「이야기 들려주기」였다. 독서활동으로 출발한 문고는 운영자의 가치관에 따라 인형극, 종이접기 등 만들기 놀이, 영화·연극 감상, 음악회, 하이킹 등 지역에 뿌리를 내린 다양한 문화 체험활동으로 확대되었다(西田 1985, 107). 문고는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이해하고 비교적 규제가 없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그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최대한 배려하여 어린이 스스로가 자신의 장소로 느낄 수 있는 종합 문화공간, 또는 책을 매개로 한 만남의 장소, 책이 있는 놀이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경향도 있었다(廣瀨 1979, 76).

이런 변화는 일본의 독서운동 자체가 문화, 교육에 대한 비판적 분위기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어린이 놀이터의 부족, 수험에 대비한 주입식 교육의 폐해, 그로 인한 어린이 문화의 실종에 대한 비판, 교육에 대한 불만이 제도적인 학교교육에서 제공할 수 없는 것을 보완하는 장소로서 문고를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공교육에 대한 사교육(가정교육)의 연장으로서, 또는 의무적 강제적인 교육에 대해서 자발적이

고 자유로운 교육으로서의 문고활동을 추구하였다. 만일 일본의 학교교육의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이었고 학교도서관이 충실하고 교과와 관련된 독서만이 아니라 여가시간에 즐거움을 누리는 자발적인 독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면 문고는 그다지 필요 없었을 것이다(松岡 1979, 114).

문고활동이 독서보다 놀이 쪽에 중점을 두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어린이의 독서를 자녀의 성장과정을 통해 체험한 어머니로서의 문고 운영자들은 어린이의 성장에 독서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독서가 어린이의 생활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종합 문화공간으로서의 변화를 기꺼이 수용하는 입장을 취했다(西田 1985, 380; 長崎 1979, 126) 어린이의 독서활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의 생활 속에서 독서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두고 문고활동의 내용이 변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고활동의 이런 유연성은 문고에만 집착하지 않고 어린이 독서활동의 필요에 따라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으로 활동의 장을 옮겨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3. 3 공공도서관 설립의 원동력으로서 문고운동

1965년에서 1975년까지 10년간은 일본 공공도서관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전기였다. 이 시기에 도서관을 설립하려는 시민운동이 대도시에서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파급되었다. 시민은 학생들이 줄을 늘어서고 장서는 부족하고 직원은 불친절하며 실내가 어두운 종래의 도서

관과는 전혀 다른 도서관을 요구하였다. 이 당시 공공도서관 설립 운동에서 모델이 된 것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즐거운 도서관 활동을 전개하고 있던 高知시립도서관, 日野시립도서관과 같은 선구적 도서관이었다. 일단 '이것이 도서관이다'라고 할 수 있는 도서관을 발견한 이상 도서관 설립은 강한 요구로 주민들 속에서부터 분출되어 나왔다(石井 1975, 14-15).

한편 문고, 독서회는 활동 규모가 커지고 내용이 다양해질 수록 이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더욱 필요로 하게 되었다. 문고의 도서관에 대한 요구는 단체대출을 지원하는 조례제정, 보조금 지원과 같은 경위를 거쳐 결국 도서관설립 요청으로 이어지고 당시의 공공도서관 설립운동과 접목되었다. 도서관 설립을 요청하는 청원 서명운동이 시작되었고 시립도서관의 설립, 분관의 설치, 이동도서관(문고)의 설치 등 자치체의 도서관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1960년대 문고운동은 1970년을 전후하여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른' 공공도서관 설립운동과 파고를 같이 하면서 문고운동으로만 그치지 않고 지역의 공공도서관 설립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문고운동 관계자들은 문고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이 원하는 도서관이 어떤 것인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서관 설립의 계획에서부터 운영에 걸쳐 깊숙이 참여하였다. 실제로 문고를 운영하면서 도서관 운동을 전개한다는 사실이 자치단체에 도서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강한 설득력으로 작용하였다.

문고운동은 공공도서관이 발달하지 않은 상

태에서 그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이 주체적으로 취한 행동으로 공공도서관의 빈약함을 지역사회에 인식시키고 공공도서관의 충실을 요구하고 설립을 촉구하는 지역의 시민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공공도서관의 빈약함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도서관 설립운동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고의 실천은 바로 공공도서관 설립운동의 기폭제로 작용하였다(浪江 1979).

### 3. 4 문고운동의 특성

#### 3. 4. 1 조직력

일본 문고운동의 가장 큰 특성은 풀뿌리처럼 저변이 확산되면서 그들을 연결시키고 하나의 힘으로 결성해가는 뛰어난 조직력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 독자와 관련한 전국적인 단체로는 1967년에 「일본 親子독서센타」와 「일본 어린이도서 연구회」, 1968년에 「科學讀物研究會」, 그리고 1970년에는 다수의 지역문고 연합회와 친자독서회가 모여서 「친자독서 지역 문고 전국 연합회」(親地連)가 결성되었다. 이들 단체는 각자의 입장에서 어린이를 위한 독서활동을 하면서 어린이문고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동시에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 중에서도 친지련은 월간 기관지 『親子讀書』(후일 『어린이와 독서』로 개칭)를 통해 각 지역의 활동을 소개하고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여 전국의 문고활동의 중심점 역할을 수행하였다.

#### 3. 4. 2 지속성

지속성은 문고운동의 또 다른 특성이다. 개

별 문고의 운영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다. 운영자 개인의 관심과 사정에 따라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개설 폐쇄가 자유롭다. 그러나 문고운동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면 어린이의 독서시설이 미비한 1960년대부터 공공도서관이 상당한 수준으로 보급된 현재에 이르기까지 40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을 유지하면서 지역 사회 어린이의 독서환경으로 건재하고 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고의 숫자는 전성기를 이루었던 1980년대 초에는 전국적으로 4,400개 이상이 활동하고 있었으며, 현재에도 3,000개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吉田 2004, 104). 문고활동은 현재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의 자원봉사 형태로도 이어지고 있다.

### 3. 4. 3 학습력

문고운동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데는 학습회의 역할이 컸다. 지역문고 연락회가 조직되어 개별 문고활동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운영자가 교류하면서 어린이, 어린이 문학, 어린이 독서 등에 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하여 학습회를 조직하였다. 학습회를 조직하고 강사를 초빙하는 것은 정체되기 쉬운 문고 운영의 주 인력인 주부의 활동에 자극을 주고 의욕을 불러일으켜 문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강좌의 내용은 어린이도서, 도서 선택방법, 어린이 문학, 책을 읽는 방법과 안내하는 방법, 작품연구 등으로

강사로는 아동문학가, 도서관 관계자 등이 초청되었다(川久保 1973).

학습의 성과는 문고활동의 영역을 확장하는데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시민의식을 고취시켜서 행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문고운동을 시민의 사회참여운동, 지역사회 문화운동으로 끌어 올리는 데 기여하였다.

### 3. 4. 4 발전성

名古屋에서 문고운동이 발전한 경위를 보면 공공시설이 빈약했던 당시 아파트 단지에서 결성된 「보육회」가 보육원이 부족했던 시기에는 시설 보육원을 운영하면서 공립 보육원 건설운동을, 자녀가 조금 성장하면 문고활동을, 후에는 생활협동조합 활동으로 활동영역을 옮겨가는 현상을 볼 수 있다(小木曾 1993, 194).

일반적으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역할은 자녀의 성장에 따라 변화한다. 독서활동에 있어서의 위치도 유동적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이것은 문고활동에 있어서 제약인 동시에 문고활동의 영역을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어린이의 독서시설과 환경을 어린이의 활동범위 내에서 제공하려는 문고의 목표가 독서활동에 있어서 문고활동의 위치와 내용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문고운동은 어린이에게 좋은 책을 읽히려는 단순한 의도에서 출발하였으나 활동이 누적되면서 독서를 매개로 한 어린이의 종합문화활동으로 내용이 확대 발전하였다. 그로 인해 문고

〈표 3〉 일본 어린이 문고수의 추이(全國子ども文庫調査實行委員會 1995)

년도	1958	1970	1974	1980	1993
문고수	60	265	2064	4406	3872

운동은 가정문고, 지역문고,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지역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협력이라는 형태로 끊임없이 활동의 장을 확대시켜왔으며 내용적으로는 독서운동, 어린이 문화운동, 지역 문화운동, 사회운동, 교육개혁운동 등의 복합적인 성격을 띠면서 발전하고 있다.

### 3. 4. 5 시민운동

문고는 아동에게 도서를 제공하고 독서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만을 한 것은 아니다. 아동에 대한 연구, 아동의 독서행태, 아동도서 등에 대한 폭넓은 연구는 문고운영자인 어머니가 성장하는 장소였다. 초기의 어린이 문고활동에 참여한 어머니들 가운데는 문고를 시작하기 전부터 사회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어린이문고 활동을 통해 주체적으로 표현하려고 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들은 문고활동으로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타인과의 연대를 통하여 학습능력을 키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회참여의 기반을 넓힘으로써 개인적으로는 자아실현을 성취하고, 공적으로는 행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민으로서의 주권을 행사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문고운동은 시민운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므로 문고활동은 어린이를 위한 활동의 장임과 동시에 어머니들 자신의 사회참여 방식이기도 하였다.

문고운동이 한편으로는 공공도서관 설립운동으로 발전하면서도 도서관에 편제되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지속되는 이유의 한 가지는 바로 문고가 운영자의 자기표현의 장으로서의 역할

이 있기 때문이다. 문고운동은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사회적 활동의 영역을 넓혀가는 표현매체로서의 역할이기도 했다(吉田 2004, 108). 이런 맥락에서 문고운동은 여성의 사회참여 방식인 동시에 지역사회의 문화, 교육을 주체적으로 개선하려는 주민·시민사회운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 4. 일본 학교도서관의 발전과 문고운동

### 4. 1 학교도서관 운동의 전개

1980년에서 1990년 사이에 문고활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80년대에 들어 문고는 점차 이용하는 어린이의 숫자가 줄어들고 연령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sup>5)</sup> 공공도서관에서도 어린이의 대출실적이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출산율의 저하로 인한 어린이 수의 감소<sup>6)</sup>와 학원에 다닌다든가 책 이외의 것에 관심이 빼앗기는 등 어린이들의 생활이 이전보다 복잡하고 바빠진 것이 주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全國子ども文庫調査実行委員会 1995, 76-81).

한편 문고운영자들은 경험을 통해 학교의 독서환경과 학교도서관의 이용 상태에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용 어린이의 숫자가 감소하고 저연령화 되어가는 전국적인 추세에서 문고활동의 한계를 느낀 것이 어린이들의 생활

5) 名古屋市の 경우 문고의 수는 1975년 28개, 1980년 46개, 1985년 47개, 1990년 45개, 1995년 37개로 1985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다(小木曾 1993, 191). 이것은 전국적인 경향이었다.

6) 일본의 15세 미만의 어린이 수는 1980년 약 2750만 명에서 2004년 약 1773만 명으로 25년 간 35.5% 감소하였다.

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학교와 학교도서관의 기능에 주목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宇原 2002).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에 문고운동 영자 및 지역의 문고연락회가 실시한 학교도서관의 실태조사에서 밝혀진 것은 학교도서관에 사람이 없어서 잠겨있는 상태이거나 도서관 담당교사가 도서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주에 0~2시간이며, 그 시간도 도서부원을 지도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자료상담과 같은 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다(宇原 2002, 527). 여기에서 학교도서관 운동이 시작되었다. 학교도서관 운동은 「학교도서관에 사람을!」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출발하였다. 문고운동의 한 축이 학교도서관 운동으로 전환된 것은 어머니·시민에 의해 공교육 제도권 밖에서 자발적 자율적으로 추진되던 어린이 독서운동이 어린이의 생활범위가 학교로 점점 좁혀지면서 학교 내로 실천의 장을 옮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부모, 주민, 시민의 입장에서 학교도서관에 사람을 배치하는 운동은 두 가지 유형으로 추진되었다. 하나는 자신들이 자원봉사자로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학교나 지자체에 도서관 담당인력을 고용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먼저 후자의 경우를 일본의 학교도서관 운동에서 가장 앞서가는 近畿 지역에서 추진된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문고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학교도서관 운동으로 전환한 학부모, 시민은 학교도서관에 관해서 상담할 수 있는 숲의 필요성을 느끼고 1991년 「학교도서관을 생각하는 회·

近畿<sup>7)</sup>」(약칭 「생각하는 회·近畿」)를 발족시켰다. 직전 해인 1990년에는 동경에서 「학교도서관에 전임의 전문 직원을!」이란 심포지움이 개최되어 학교도서관에 사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學校圖書館を考える會·近畿 1994, 2).

회의 운영 주체는 문고활동과 공공도서관 설립의 경험을 통해 어린이가 자라는 지역사회나 교육의 문제에 관해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광범한 시민들이 연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민, 사서, 교사, 연구자, 행정 관계자 등 다양한 입장의 사람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참여하도록 구성하였다. 「생각하는 회·近畿」는 학교도서관 문제에 참여하는 일본 최대의 시민단체로 1997년 현재 약 450명의 회원이 있으며, 이후 전국 각지에 지역 명을 달리하는 동일 명칭의 회가 60개 이상 조직되었다(學校圖書館はどう... 2001, 8). 1997년에는 학교도서관법 개정에 공동 대처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을 생각하는 회 전국 연합회」를 결성하였다.

학부모 시민단체가 학교도서관의 인력을 확보하는 방법은 사비, 즉 PTA 경비로 임시 인력을 고용하든가 학교장, 교육위원, 지자체장을 설득하여 공비로 사람을 고용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로는 사비로 부담하던 것을 자치단체의 시책으로 전환하여 공비로 지출하도록 하고 도서관 담당 인력의 자질에 전문성을 요구하고, 업무를 전담할 수 있고 신분이 안정된 정규직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학교도서관에 사람을 배치하는 운동에 결정적 역할은 한 것은 1991년에 岡山市의 학교사

7) 近畿지역은 奈良, 大阪, 京都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시민단체에 의한 학교도서관 운동이 가장 활발한 곳이다. 특히 학교사서를 배치하는 사업에 선구적인 지역이다.

서들이 제작한 『책이 있고, 사람이 있어서』라는 학교도서관 활동에 관한 비디오였다. 학교 사서의 배치로 활성화된 도서관 서비스와 학생들의 이용 상황을 비디오로 보고 자극을 받은 시민들은 인근 지자체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학교도서관에 사람을 배치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岡山의 비디오를 보는 회」가 전국에 조직되었다. 학교도서관에 사람을 배치하는 운동에 가장 선구적이었던 近畿지역의 箕面市, 岡山市, 豊中市는 학교도서관 충실시책의 일환으로 비록 촉탁의 신분이기도 하나 1991년에서 1992년 사이에 전임의 사서를 배치하기 시작하였다. 岡山市에는 1998년 현재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전임·전문의 학교사서가 배치되어 있다. (岡山市 홈페이지)

현재 「생각하는 회·近畿」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단체는 모든 학교에 전문·전임·정규의 학교사서를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학부모 또는 주민들은 문고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원봉사자의 형태로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참여하기도 한다. 이들은 문고의 활동내용을 그대로 학교도서관에 이식하여 「책 읽어주기」, 「이야기 들려주기」를 실시하면서 학교사서가 배치되지 않은 도서관을 개방하고 환경을 정비하고 대출 반납업무를 담당하면서 겸임의 사서교사 업무를 보조한다.

기존의 문고운동에서 계승되지 않은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의 학교도서관 활동내용도 문고활동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한 예로 카리브(KLV)라고 하는 栃木縣 鹿沼市の 자원봉사자 활동을 볼 수 있다. 1991년에 22명의 학부모 및 주민으로 시작한회는 2000년 현재

250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도 초기에는 문고의 기본 활동인 「책 읽어주기」로 학교도서관 봉사를 시작하였다. 현재는 시내 31개의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책 읽어주기」 등의 독서보급 활동, 도서관 이용지도 뿐만 아니라 신간도서의 수입, 배가, 보수, 폐기, 보조교재의 독서지도, 조사학습 등의 수업 지원, 독서계발을 위한 계시물 만들기, KLV 통신 발행, 독서환경 만들기, 책의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각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학교도서관 내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시 전체가 독서환경 만들기에 참여하는 것이 어린이의 독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관공서, 병원, 미장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곳에 작은 문고를 설치하고 있다(南部 2000).

시민들이 주도하는 이러한 활동은 학교도서관과 지역사회의 어린이독서 추진활동이 별개의 것이 아니며, 학교, 학교도서관, 지역사회, 공공도서관이 어린이의 독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떻게 연휴할 수 있는가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문고운동에 계보를 둔 시민들이 추진하는 학교도서관 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학습력에 있다. 지역의 문고에서 학교도서관으로 활동의 장을 옮기면서 새로운 환경과 문제점을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 관계자, 전문가를 초청하여 심포지움, 강연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생각하는 회·近畿」는 결성되던 1991년부터 1992년 사이에 개최한 세 차례의 강연을 도서로 간행하였고(學校圖書館を考える會·近畿 1994),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KLV의 경우 자원봉사자를 위한 자체 연수회

가 수준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과 연수는 비전문집단인 시민단체의 학교도서관 인력으로서, 또는 운동가로서의 역량을 점점 강화시키고 있다.

시민단체는 1997년의 학교도서관법의 개정에도 적극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현행의 사서교사 제도로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학교도서관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사서교사 양성제도의 필요성, 더욱 근본적으로는 학교도서관 운영을 교육의 본질에서 접근하는 등 강력한 여론 형성을 주도하며 현재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주도하는 세력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 4. 2 긍정적인 측면

일본 학교도서관의 활성화가 시민단체의 활동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국가적 정책은 오히려 미미하였지만 학교도서관의 중요성과 전담 인력의 필요성을 느낀 학교장, 교육위원, 자치단체장이 학부모의 도움을 얻어, 또는 시의 施策으로 학교도서관에 인력을 배치하는 노력을 해왔다. 그 가운데서 문고운동에서 출발한 시민단체가 학교도서관 활성화 운동에 참여한 것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첫째, 학교도서관의 문제를 표면화했다는 점이다. 문고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수가 감소하면서 문고활동에 한계를 느낀 운영자가 어린이의 가장 중요한 독서환경으로 학교도서관에 관심을 갖고 실태를 조사한 것에서 학교도서관의 빈약한 현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전까지 학부모는 교직원, 학생에게 봉사하는 학교도서관

의 실제 모델을 본적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에 관심도 갖지 않았다(宇原 2002, 528). 岡山시의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비디오를 통해 학교도서관의 역할과 가능성을 이해한 문고 운영자들은 그들의 실천경험을 바탕으로 학교와 지자체에 학교도서관 개선을 강력한 설득력으로 접근하였다.

둘째, 학교도서관에 사람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시켰고 학교사서를 배치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시민단체의 구성원은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학교나 학교도서관 관계자로서가 아니라 학부모, 지역사회의 주민으로서 참여함으로써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셋째, 학교사서의 실천성고가 축적되면서 사람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부각시켰다. 그 결과 1997년에 학교도서관법을 개정하여 1953년 법이 제정된 이후 44년 동안 사서교사의 배치를 유보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2003년 3월 31일까지 12학급 이상의 학교에 사서교사를 전면 의무 배치하도록 하였다.

넷째, 학부모이면서 동시에 주민, 시민이기도 한 시민단체의 자발적 참여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통합된 형태로 어린이 독서활동을 추진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도서관과 그 지원기관인 공공도서관의 연계를 용이하고도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일본국민의 독서와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은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법」을 제정하도록 하였으며 이런 정책의 수립은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학교도서관의 외벽을 공고히 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 4. 3 부정적인 측면

시민이 주도하는 운동은 학교도서관 활성화의 초기단계에는 획기적인 발전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드러나기도 한다. 가장 부정적인 면은 어린이의 독서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학교도서관의 전문성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기준으로 볼 때 학교도서관의 이용자는 교직원, 학생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의 주 기능은 교육과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장서의 구성이나 서비스의 내용 역시 주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학교도서관,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어린이의 독서기능과 교육-학습 기능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은 무척 어렵다. 독서능력은 사고능력이며 학습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독서는 학교도서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성장단계에 따라 가정이나 공공도서관, 지역사회 등의 다양한 시설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학교도서관은 교육과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역점을 두어야 마땅하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어린이의 독서활동을 추진한 문고운동 세력이 공공도서관 설립운동을 거쳐 학교도서관으로 그 이념을 그대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의 전문성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전문성이 배제된 또 다른 이유로는 일본의 사서교사 제도의 특성에 기인하는 점도 있다. 교과교사로서 겸임하는 사서교사가 도서관을

체대로 운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학교사서를 배치하게 되었다. 학교사서라고 하지만 그 자격은 천차만별로 사서 또는 사서교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도 있지만 독서지도원, 문고운동을 하던 자원봉사자들이 다양한 직책으로 유입되면서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된 도서관 활용과는 관계가 멀 수밖에 없다. 법제적인 학교도서관 담당인력인 사서교사의 실천이 미약하고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도서관 운영의 규범이 될 수 있는 실천 모델이 부족했고, 시민단체가 학교도서관의 운영에 관해 함께 의논해야 할 공식집단의 존재가 애매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추진되는 「학교도서관 도서정비 계획」과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법」은 학교도서관의 성격을 문고의 연장선으로 보거나 학교 내의 공공도서관, 또는 지역 공공도서관의 학교분관으로서의 성격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고운동과 학교도서관 운동에 깊이 관여한 北村가 '어린이도서관 독서활동에 관여하는 시민이 독서의 장으로서 학교도서관에 대한 기대를 갖기는 쉽지만 교육을 만드는 학교도서관과 그것을 담당하는 전문직원, 도서관을 활용하는 교사를 그려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北村 2002, 165)는 고백은 바로 전문성이 부족한 시민운동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에 관한 매우 진솔한 고백이라 하겠다.

또한 학교교육의 일체(一齊)성, 강제성, 과제독서, 독후감 쓰기에 부정적인 문고운동가들이 의도적으로 학교도서관에서의 자유독서를 중시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일본의 문고운동은 책

을 매개로 한 지역사회의 어린이문화 육성활동으로 어린이문화 육성의 한 場으로서 학교도서관의 활성화에 큰 공헌을 하였으나 학교도서관의 전문성이나 특성을 충분히 배려하지는 못하였다.

둘째, 학교도서관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에 대한 해법이 너무 안이하게 추진되었다. 거의 잠겨있다고 한 학교도서관에 우선 사람을 배치하려는 목적에서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신분이 불안정한 임시직 또는 긴급 고용촉진법을 활용한 촉탁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학교사서'의 배치로 받아들이는 움직임이 있었다. 단기간에 도서관을 정비한다, 도서관 서비스를 실현한다, 독서활동을 전개한다는 등의 활동을 단편적으로라도 실천하면 이제까지 단혀져 있던 학교도서관에 활기가 생기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민과 학교사서 지망자의 열성적인 노력이 학교사서의 실천, 학교도서관 서비스로 홍보되어 학교 관계자들에게 도서관에 대해 왜소화된 인식을 확산시키는 문제점이 있다(北村 2002, 165).

셋째, 전담·전문·정규인력이 없을 경우 자원봉사자에 대한 기대는 클 것이고 그 역할도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존도 역시 클 수밖에 없다. 학교도서관 전문 인력에 의한 표준화된 활동 모델이 없기 때문에 각 학교는 봉사자의 역량에 따라 독자성을 발휘하여 학교도서관을 운영하게 된다. 독자성이란 뒤집어보면 학교간의 격차를 의미하는 것이며 공교육, 교육기회의 균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문제의 소지가 있다.

지역의 인재 활용이나 학교(도서관)의 개방 등 학교와 지역의 연계를 강화하는 열린 학교

만들기를 시책으로 진행하면서 학부모, 시민의 학교도서관에 대한 요구와 참여를 자원봉사 형태로 끌어들이 실질적으로는 '관리 가능한 노동력'으로 보고 직원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게 한다(柴田 2002)는 점에서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자원봉사자의 진출이 학교도서관의 전문직을 대신하는 형태로 안이하게 도입되고 있다는 점(渡辺 2002), 이제까지 시책을 요구해온 시민이 이제는 학교교육에의 참여를 요구받으면서 시책에 쫓기고 있다(北村 2002, 168)는 점은 전문 영역에 시민참가의 의의와 자원봉사의 역할과 한계라는 면에서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 5. 결 론

일본 학교도서관의 발전에 미친 문고운동의 영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학교도서관의 활성화 과정에서 어린이 문고활동을 해온 시민들의 참여가 크게 기여하였다.

둘째, 어린이 독서라는 관점에서 학교도서관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 시민들은 한편으로는 학교도서관의 개방, 도서관 업무의 보조라는 자원 봉사의 형태로, 다른 한편으로는 사서교사를 배치하기 위한 학교도서관법 개정 운동에의 참여,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법」의 실천에 독서 자원봉사자로서의 참여 등의 형태로 적극적으로 어린이 독서활동, 학교도서관 활동에 공헌하고 있다.

셋째, 시민들의 열성적인 자원봉사 활동은 그 본래 취지와는 달리 학교도서관의 전문 인

력을 대신할 수 있는 유휴노동력으로 잘못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넷째, 비전문가의 자원봉사 활동에 의한 활성화는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어린이·청소년의 독서시설로 축소 인식시키는 경향을 유발하였으며 이는 학교도서관의 전문성 및 학교도서관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확립하는 데 저해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일본 학교도서관 현상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의 수립에 시민단체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관계로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큰 쟁점으로 떠오르는 몇 가지 현상은 시민의 참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전문 인력으로서 비정규직 사서교사의 문제, 학교도서관 전문 인력의 하나로 학교사서<sup>8)</sup>라는 직책(용어)의 등장,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협력 방안 모색 등이다.

비정규직 사서교사의 문제는 1997년 이후 공공근로 인력을 도입한 것에서부터 비롯되었고 이 활동을 주도한 것은 경기도의 시민단체였다. 시민단체가 어린이의 독서문제에 관심을 갖고 학교도서관 운영에 참여하게 된 것이 한편으로는 교육행정 당국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의 수립이라는 큰 성과를 가져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사서교사 문제의 단초를 제공하게 된 셈이다.

학교사서라는 용어의 등장은 학교도서관 담당 인력으로 사서교사 자격이 아니고 사서 자

격을 가진 인력이 도입된 데서 기인한다. 그러므로 비정규직 사서교사와 학교사서는 서로 관련된 문제로 시민단체가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이다. 학부모 자원봉사자의 참여,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협력방안 역시 시민의 학교도서관 참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시민이 학부모이며, 공공도서관의 재원인 동시에 이용자이며, 학교도서관의 간접적 수혜자이고 후원자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기술한 현재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의 상황은 본 논문에서 고찰한 일본 학교도서관의 현상과 상당히 흡사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도서관의 발전이 뒤쳐진 국가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학교도서관의 발전이 어떤 시점에 도달했을 때 겪어야 하는 통과 의례로 이해할 수도 있다. 약간의 시차를 두고 비슷한 발전과정을 거치는 양국의 현상에서 몇 가지 유의할 점과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로 학교도서관의 전문성 확립과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학교도서관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학교도서관이 단순한 어린이·학생의 독서시설이 아니라 교과전개와 연계된 교수-학습센터로서의 전문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학교도서관의 전문성 확립은 어린이 독서환경으로 공공도서관의 설립을 추구하고,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올바른 협력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둘째로 시민운동으로는 학교도서관의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시민운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책을 추구하고 시

8) 2004년 7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의 제2조(정의) 6항: "학교사서"라 함은 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책의 문제점을 끝까지 규명하고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운동과 시책이 서로 자극과 견제의 역할을 함으로써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러한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꾸준하고 성실한 학습활동이 전제되어야 한다.

차이점으로는 일본의 학교도서관 활성화에서는 시민운동과 시책 모두 그 핵심이 사람에게 있는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시민운동 차원에서는 사람의 문제가 주가 되었으나 정부시책에서는 외형 정비에 주력하고 사람의 문제가 그들에 가리워진 차이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경우에는 전문·전

임·정규의 사서교사 집단이 형성되어 있고 그들의 활동이 표준화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하나의 규범으로 존재하며, 사서교사들 사이에 정보교환이 매우 활발하고 상호 협조적이라는 점이다.

이것이 시민, 학부모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운동이나 지역의 정책이 단기간 내에 소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그만큼 전문가 집단의 역할은 중요하고 한 집단의 전문성이야말로 그 분야가 사회적으로 인정 받고 공헌할 수 있는 원천이라 하겠다.

## 참 고 문 헌

- 권은경. 2004. 일본의 학교도서관법 개정과 사서교사제도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2): 95-118.
- 김중성. 2003. 지역 단위 학교도서관운동의 내용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 회지』, 34(4): 291-312.
- 岡山市 홈페이지  
 <<http://www.icity.or.jp/usr/sisyuku/>> 2003년 11월 30일 인용.
- 廣瀬恒子. 1979. 親子讀書地域文庫全國連絡會9年のあゆみ. 『現代の圖書館』, 17(2):72-78.
- 吉田右子. 2004. 1969年代1970年代子ども文庫運動再検討. 『日本圖書館情報學會誌』, 50(3): 103-111.
- 吉川亮子. 2003. 變わりゆく「學校圖書館」. 『學校經營』, 48(10): 74-87.
- 南部悦子. 2000. まちが支える學校圖書館 栃木・鹿沼市 <1>: 子どもたちに本との出會いのときめきを. 『子どものしあわせ』, 586: 66-72.
- 渡辺信一. 2002. <宇原郁世: 學校圖書館職員像をめぐって> に關する若干の考察. 『圖書館界』, 54(3): 160-163.
- 浪江 虔. 1979. それは貴重な住民運動である. 『現代の圖書館』, 17(2): 112-113.
- \_\_\_\_\_. 1977. 文庫運動と圖書館運動. 『公民館・圖書館・博物館』. (小林文人編). 東京: 亞紀書房. 208-234.
- 笠原良郎. 2003. 地域ぐるみで學校圖書館の充實を!. 『子どものしあわせ』, 630: 36-43.
- 文部科學省. 2002. 學校圖書館の現狀に關する調査(平成14年度).

- <<http://www.mext.go.jp/a-menu/sports/dokusho/data/cont-002/001.htm>> 2003년 11월 30일 인용.
- 文部科學省スポーツ・青少年局青少年課. 2003. 子どもの讀書活動推進法と文部科學省の取組. 『學校圖書館』, 638: 15-16.
- 尾形礼子. 1970. 地域文庫づくり. 『月刊 社會教育』, 14(9): 29-35.
- 北村幸子. 2002. 21世紀の學校圖書館: 宇原郁世「學校圖書館職員像」を考える. 『圖書館界』, 54(3): 164-169.
- \_\_\_\_\_. 1997. 子どもが生き, 教師が活きる教育を! -「考える會・近畿」が法改正に求めたもの. 『現代の圖書館』, 35(4): 223-226.
- 肥田美代子. 2003. 本を読むこと生きること. 『圖書館雜誌』, 97(6): 374-375.
- 寺本葉子. 1970. 團地での親子讀書運動. 『月刊 社會教育』, 14(9): 21-27.
- 山崎 翠. 1979. 家庭文庫から圖書館づくりの運動へ—その問題點とこれからの課題—. 『現代の圖書館』, 17(2): 84-85.
- 森 耕一. 1976. 圖書館運動における市民参加への道程. 『圖書館界』, 28(2/3): 102-105.
- 森崎震二地. 1979. 地域文庫と文化の形成. 『現代の圖書館』, 17(2): 118-120.
- 西田博志. 1985. 文庫活動. 『圖書館界』, 36(5): 379-385.
- 石井 敦, 前川恒雄. 1975. 『圖書館 發見: 市民の新しい權利』. 東京: 日本放送出版協會.
- 小木曾眞. 1993. 子ども文庫と圖書館. 『圖書館界』, 45(1): 189-195.
- \_\_\_\_\_. 1992. 名古屋市内のこども文庫-1990年度調査から-. 『圖書館界』, 44(3): 120-129.
- 小河内芳子. 1972. クローバー子供圖書館, ねりま地域文庫, 電車圖書館, 雨の日文庫など. 『社會教育』, 27(12): 13-15.
- 松岡亨子. 1979. 文庫發展のあとをふりかえって『現代の圖書館』, 17(2): 114-116.
- 柴田正美. 2002. 論文檢討會要旨: 宇原郁世「學校圖書館職員像をめぐって: 市民は何を期待し, 職員はどう考えてきたか」. 『圖書館界』, 54(3): 156-159.
- 新井せい子. 2003. 大阪府子ども讀書活動推進計劃の策定について~子ども讀書活動推進會議 委員の立場から~. 『圖書館界』, 55(3): 168-173.
- 阿部雪枝. 1979. ねりま地域文庫讀書サークル連絡會のあゆみ. 『現代の圖書館』, 17(2): 78-83.
- 塩見 昇. 1986. 『日本學校圖書館史』. 東京: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 \_\_\_\_\_. 1979. 「文庫と圖書館」に思うこと. 『現代の圖書館』, 17(2): 122-123.
- 宇原郁世. 2002. 學校圖書館職員像をめぐって: 市民は何を期待し, 職員はどう考えてきたか. 『圖書館界』, 53(6): 526-535.
- \_\_\_\_\_. 2001. 學校圖書館. 『圖書館界』, 53(3): 208-220.
- 長崎源之助. 1979. 讀書を孤立させないため

- に、『現代の図書館』, 17(2): 126-128.
- 全國子ども文庫調査実行委員会. 1995. 『子ども豊かさを求めて3-全國子ども文庫調査報告書-』. 東京: 日本図書館協會, 1995.
- 齊藤尚吾. 1971. のびゆく親子讀書運動. 『月刊 社會教育』, 15(12): 7-13.
- \_\_\_\_\_. 1979. 図書館づくり運動の歩み. 『現代の図書館』, 17(2): 68-72.
- 川久保武子. 1973. 親子讀書會から移動図書館請願運動へ. 『月刊 社會教育』, 17(4): 81-86.
- 清水正三. 1979. 東京を中心とした戦後文庫運動の覺書一敗戦時から1970年まで. 『現代の図書館』, 17(2): 63-68.
- 坂部 豪. 2003. 子どもの讀書活動推進計劃の現在-都道府縣の計劃を中心に. 『図書館雑誌』, 97(6): 370-372.
- 河井弘志. 2001. 交付金の「學校図書館圖書整備費」はどこへ行ったか. 『図書館雑誌』, 97(6): 394-397.
- 學校図書館問題研究會 홈페이지.  
<<http://homepage3.nifty.com/gakutoken/works/kqdai0301.html>>  
2005년 1월 21 일 인용.
- 『學校図書館はどうつくりられ發展してきたか』編輯委員會 編. 2001. 『學校図書館はどうつくりられ發展してきたか: 岡山を中心に』. 東京: 教育史料出版會.
- 學校図書館を考える會・近畿 編. 1994. 『いま, 學校図書館を考えるために: 塩見昇講演記録集』. 東京: 日本図書館協會.
- 黒岩高明, 古賀節子, 長倉美恵子 編. 1994. 『學校図書館の指導と經營』. 東京: 教育開發研究所. 1994.